

음악의 영향력 (1) 🎵

'음악'이란 리듬·멜로디·화성으로 이루어진 소리 예술로서,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음악은 그릇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철사로 뼈대를 만들고 그 사이를 가는 철사로 엮은 다음 그 위를 종이 찰흙으로 발라 만든 그릇 말입니다.

그릇은 그 자체로서도 감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릇의 진정한 가치는 그 안에 무엇을 담았을 때 나타납니다. 꼭 같은 그릇이라도 거기에 물을 담으면 물그릇이 되고,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됩니다.

그 안에 무엇을 담아서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받게 되는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 전인격에 영향을 미치는 음악 >>

리듬, 멜로디, 화성으로 이루어진 음악은 하나의 그릇입니다.

그릇처럼 음악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예술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악이라는 그릇은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 그 음악 자체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이때 음악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을 우리는 '가사'라고 합니다.

꼭 같은 멜로디의 음악이라도 그 음악에 붙이는 가사에 따라 이별의 노래가 될 수도 있고, 싸움의 노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사가 담기지 않은 음악이라는 그릇과, 가사가 담긴 음악이라는 그릇은 그 가치도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이 말은 가사에 따라 우리 사람에게 전달되는 영향력도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잘 만들어진 금그릇에 밥을 담아서 먹으면 매우 유익한 밥그릇이 되지만, 그 꼭 같은 금그릇에 독약을 담아서 먹으면 그 그릇은 우리를 죽이는 독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음악의 가치를 논할 때 제일 먼저 그 음악이라는 그릇에 어떤 내용(가사)이 담겨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사 내용에 따라 그 음악이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사가 붙지 않은 음악은 단지 우리의 감정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를 슬프고 우울하게 하거나, 유쾌하고 흥겹게 하거나,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악이라는 그릇에 가사라는 내용을 담게 되면 이것은 우리의 감정뿐만 아니라 인격의 다른 두 요소, 즉 지성과 의지에까지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어 음울한 마이너 코드의 경음악만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슬프게 되고, 웬지 우울하게 만드는 효과 정도를 낼 뿐이지만, 꼭 같은 이 음악에 "년 아무 가치도 없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거야"라는 가사가 담겨져 전달되었을 때 우리는 평소의 열등감과 무기력함을 떠올리게 되고, 급기야는 죽음까지 연상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음악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자극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멜로디와 같은 내용의 가사로서 함께 부르는 무리의 마음을 동일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군가를 함께 부르고, 데모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담았거나 자신들을 격려하고 투쟁을 독려하는 노래를 함께 부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가사가 담긴 음악이 우리의 전인격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최용덕/ 종합문화선교 찬미 대표간사.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발행인.

☘ 청소년과 함께하는 QT나라 , 「 새벽나라 」제공

<http://isena.com/>